



# 지평선 총체보리 섬유질 배합사료공장 준공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5월 25일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총체보리를 생산, 양질의 국내 자급사료를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섬유질배합사료공장을 완공하고 박홍수 농림부장관,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최규성 국회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남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시군의원 및 지자체 단체장과 관내 조합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전주김제완주축협의 김창수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한우농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미FTA 타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방안은 고급육의 생산뿐”이라며 “앞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끌기 위하여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우리지역의 총체보리 섬유질배합사료 공장은 지역의 한우산업 발전의 열기를 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하여 “이제 축산업도 국경없는 경쟁시대가 도래하여 품질



박홍수 농림부장관



충청북도 섬유질사료공장 전경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섬유질사료공장 내부모습

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점적인 대책방안이며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 조사료의 자급 노력과 품종개발을 통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우생산기지화사업에 의하여 이 지역의 한우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전라북도의 총체보리 특구를 가시적으로 계획·발전시켜 한우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충청보리 섬유질 사료화에 대한 성공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번에 준공한 전주김제완주축협의 충청보리 섬유질 사료공장은 2006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총사업비 2,531백만원(국비: 6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시비: 300백만원, 자부담: 1,331백만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고 연면적 9,977㎡, 건물면적 2,620㎡, 일일 100톤 생산규모의 최신식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 한우사육농가들에게 고품질의 친환경 섬유질 배합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듯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의 지평선 뜰에서 친환경 자연순환농법으로 재배한 충청보리를 이용하여 만든 섬유질배합사료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조사료의 자급율을 개선하고 생산비의 절감을 통하여 경영의 안정화 및 고품질 우수한 한우고기를 생산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보리 한우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취재: 신승규 대리